

올바르지 못한 힘은 흥기... 세상 어지럽힌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⑤ 제천대성이 된 손오공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더라? 화과산 수렴동 원숭이 왕국 어수선하다. 혼세마왕이라는 요괴의 침략으로 망하기 직전이다. 이때야말로 그동안 배워온 법술의 위력을 뽐낼 때. 단숨에 혼세마왕 때려잡고 왕의 위엄을 떨치도다.

이때부터 승승장구~ 자신의 힘을 깨달은 손오공 힘자랑, 세력 쟁기 시작하다. 오래국 무기 창고 털어와 원숭이 군사 무장시키고 여러 요괴의 두목들과 두루 사귀며 동해 용왕국에 쳐들어와 여의봉 강탈하고 염라대왕의 명부에 이름 삭제하여 명실상부하게 영생을 얻는다. 도를 모르는 자의 힘자랑 어디까지 갈까.

은 세상 시끄럽겠네!
용왕의 상소, 지장왕보살의 상소, 옥황상제에 올라오도다. 마땅히 군대를 보내 토벌할 일인데도 무력을 앞세우기 보다는 회유가 먼저지. 적당히 필마온 벼슬 내렸다가 낮은 벼슬에 불만 품은 손오공 난동에 결국 한판 무력 충돌..... 이 원숭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제천대성이라는 허울뿐인 벼슬로 달래도다. 허울뿐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벼슬이름인가. '하늘을 평정한 큰 성인' 이로서.

성공을 거두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衣錦而夜行)는 말이 있거늘요. 항우(項羽)의 말입니다. 옛날의 친했던 이들에게 자신의 출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말한 것이라 할까요?

아무튼 원숭이 왕이었던 손오공, 번듯하게 성과 이르고 얻고 많은 도술도 배워서 돌아가게 됩니다. 도술을 배우다 가는 거니까 비단옷 입고 고향에 돌아가는 금의환향(錦衣還鄉)은 아니겠지만요. 또 아직 손오공은 큰 도를 끝까지 추구하지 못하고 파문되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큰 좌절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선술을 배워 불로장생하게 되고 많은 술법을 배운 자신이 그저 장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왔던 길을 근두운 타고 획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의기양양~

그런데 돌아온 원숭이 왕국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완전히 전정 상황! 알아보니 혼세마왕이라는 자의 침입으로 많은 원숭이들 잡혀가고, 남은 원숭이들 결사항전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런 위기상황이야말로 그 동안 닦아온 술법의 위력을 드러내기 정말 좋은 상황이군요. 안성맞춤이랄까요? 손오공 한달음에 혼세마왕 본거지로 쳐들어와 여러 가지 술법으로 단숨에 혼세마왕 무찌르고, 포로로 잡혀 있던 원숭이들 구하여 당당하게 귀환! 그야말로 왕의 귀환이군요. 이 대목에 손오공의 술법들이 하나하나 소개되네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몸에는 털을 뽑아 작은 분신으로 둔갑시키는 술법이죠. 수많은 작은 손오공들 요괴에게 와르르 달려들어 때리고 꼬집고 할퀴고..... 으흐흐~ 신기하고 통



그림·최주현

쾌해라.

이르, 이런 작은 일에 재미있어 할 때가 아니군요. 이야기를 좀 바빠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때부터입니다. 손오공이 자신의 힘에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가요. 한번 휘둘러보니 못할 게 없군요. 혼세마왕으로부터 얻은 국방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으로 오래국 무기 창고를 통째로 털어오죠. 물론 술법으로 도둑질! 군사조련 열심히 시켜 사방에 위세를 떨치고, 세상의 한가락 하는 요괴 두목들과 친교를 맺어 든든한 울타리도 만들고 하는, 힘 있는 자들의 위세 떨치기 과정을 차례로 밟아 가네요.

그러는 과정에 앞으로 절대 빠질 수 없는 손오공의 전용 무기 여의봉도 얻게 되죠. 온전한 이름으로 말하면 여의금고봉(如意金?棒)이네요. '뜻대로 되는 금태 두른 몽둥이' 라는 뜻이죠. 줄여서 '여의봉', 즉 뜻대로 되는 몽둥이가 되는 거죠. 옛날 우(禹)임금이 대홍수 때 강바닥을 다지던 몽둥이라는 전설과, 용왕국에 쳐들어가 거의 강탈하듯 그것을 얻어내는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심상치 않군요. 여기서 손오공을 대표하는 근두운과 여의봉의 의미를 한번 새기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군요.

손오공은 마음을 상징화한 것이라는 말씀.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이미 드렸죠? 그 마음의 작용과 크기를 어떻게 그려내죠? 물론 그려야 그럴 수 없는 것이 마음이란 하지만, 그래도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빠른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든 뜻을 두면 마음이 거기 간다고 하죠. 근두운은 아마도 잠깐 사이에 온 누리를 오가는 마음의 작용을 상징한 것이라 보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두(筋斗)'란 말은 '근두'란 말의 어원으로 몸을 뒤쳐어 재주를 넘는 것을 말하니

화과산 돌아와 혼세마왕 무찌르니

기세 백배 천군을 어지럽혀

'제천대성' 직위 얻고 선인 노릇

다. 마음이 한번 재주를 넘어 단숨에 심판 팔천리를 달리는 것을 행용한다고 보아도 좋은 것 같네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몸은 앉아 있어도 달리는 마음의 상태를 장자는 '좌치(坐馳)'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지요. 근두박 질치며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두박질치며 타고 올라 날아가는 구름이 바로 근두운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 여의봉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 분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마음의 크기가 얼마인가에 대한 물음,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펼치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고 모으면 겨자씨에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의봉은 그렇게까지 형용되지 않습니다. 늘이면 하늘 땅을 떠날 정도로 커지지만 작게 하면 콧구멍에 집어넣을 정도로 작게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작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안한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듯이 손오공을 대표하는 근두운과 여의봉은 사람의 마음을 그리는 비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그 마음을 쓰는 여러 술법에 능통해져서, 그 마음의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마음의 힘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큰일을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정적으로 말해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한군데

모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문제인거지, 정말 마음을 모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술법이라든가 신통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힘을 부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마음의 힘이 있고, 또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요. 힘이라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단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정말 흥기처럼 큰 해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 준 것과 같다는 말이지요. 지금 손오공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술법에는 두루 통했는데,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깨달음은 얻지 못한 상태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힘에 취하게 되고, 힘의 노예가 되게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손오공의 행태는 바로 힘에 취한 자가 벌이는 광태라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그럼 볼까요? 힘에 취한 이들이 우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하를 거느리고 세력을 넓히는 것 입니다. 힘에 의한 자기 영역의 확대라 할까요? 처음에는 침략해온 혼세마왕을 무찌르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에 머무른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만, 방향성을 갖지 못한 힘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밖으로 확장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군대로 조직하고, 그 군대를 위해서 무기가 필요하고, 그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오래국의 무기창고를 술법으로 털고, 부하들의 무기는 장만했는데 자신에게 마땅한 무기가 없어 용왕국에 들어가 여의봉을 강탈하고..... 아주 차례가 잘 맞죠? 그림이 제대로 나오죠? 그런 겁니다.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힘의 확장과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힘의 확장과정에는 원칙이 있죠. "센 놈이 최고다!" 바로 이것입니다. 손오공 용왕에게서 여의봉 등을 강탈하고 하는 말 좀 보세요. "폐를 끼쳤군, 폐를 끼쳤어" 그걸로 입씩 씹습니다. 힘이 약한 용왕들은 어쩔 수가 없지요.

염라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명을 기록한 명부 가져오라 하여 자신의 이름 먹물로 씩 지우고, 가까운 원숭이들 이름도 씩 지우고..... 그래서 선술로 불로장생하게 된 손오공이 이제 완전히 자연의 수명의 기록부까지도 말소시켜 명실상부한 장생불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힘 약한 염라왕이나 지장왕보살도 그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힘 있는 자의 눈앞에서일 뿐이죠. 세상이 모두 힘만으로 되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세상의 질서를 관장하는 최고의 존재가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왕이고, 온 세상을 말한다면 바로 하늘의 남이지요. 도교적 세계관에서는 옥황상제가 바로 하늘의 남입니다. 그 옥황상제에 힘없어 당한 어려움을 바로잡아 달라고 고발장을 내야 하겠죠? 그래서 용왕들과 염라왕들의 고발장이 줄줄이 접수되고, 그 고발장을 처리해야 하는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세상이나 하늘세상이나 '좋은 게 좋은 거' 라는 풍조가 만연해있는 모양이군요. 가능하다면 시끄럽지 않게 넘어가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래 세상이나 위 세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끄럽게 구는 원숭이 토벌한다고 더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적당히 벼슬 하나 내려서 회유하자는 건의가 있고, "오, 그거 기발한 생각이야!" 하는 찬탄이 나오고, 그래서 손오공이 '필마온'이라는 벼슬을 받게 됩니다. 뒷골목 시끄럽게 하는 조폭 두목에게 적당한 치안대 감투 하나 씌워주는 격이죠. 하늘 세상에 어드워드 손오공이 영결계에 그 감투 받아들이지만 결국 미판 말직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자존심 하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손오공이 발끈할 수밖에 없고, 아예 감투 차버리고 내려와 스스로 '제천대성(濟天大聖)'이라는 큰 관두를 써 버리죠. '하늘을 평정한 큰 성인'이라는 뜻이지요. 골목대장이 스스로 '천하제일 돌주먹'이라는 별명을 지은 격이라 할까요? 발칙하게 하늘을 제패한다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좋은 게 좋은 거' 를 포기하고 토벌대를 보냈는데, 문제는 정말 이 원숭이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토벌이 잘 안되니까 다시 '좋은 게 좋은 거' 라는 원칙이 득세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름뿐이고 임무는 없는 '제천대성'이라는 관직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선술을 닦아 어느 경지에 올랐던 손오공이 이제 정말 선인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거든요. '선적(先蹟)'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지요? 비록 아직은 이름뿐이지만 공식적인 선인으로 등재된 손오공, 원숭이의 출생대는 버릇 꼭 참고 지긋하게 선인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어느 쪽에 걸지 내기 한번 해 보실래요? 저는 "결코 못한다!"에 걸겠습니다. 모두 여기에 걸면 내기가 안 되잖아요~. 삼패선생 내기로 좀 벌려 했더니..... 나뉘게남게 눈치보이네요. 다음 시간에 봐요.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380여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법왕청



드디어 세계불교법왕을 모시다. 60만의 승려의 최고 지도자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Dr 우 꾸마라 종정 사야도

10월 31일 법왕청 각료 법왕께서 직접 임명하는 의식 봉행 참석

- 1부. 법왕께서 직접 각부장관 임명 2부. 법왕청각료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정부각료 미팅, 만찬
- 3부. 미얀마 승가대 승려와 동행하여 짜익티오에서 철야기도 정진 (전 일정 불교TV 방영예정)

참석자 8월 31일 까지 선착순 신청마감

각 국 불교협회 회장 및 승왕들의 법왕 수석 장로 취임식도 같이 봉행 진행중임
법왕을 보좌할 새 내각 구성하기위해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전각료 재심사위 결성

법왕청 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 전각료를 비롯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롭게 법왕청 내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위에서 발급 및 임명된 모든 직책은 법왕 즉위로 사명을 다 여기기에 모든 직위가 만료되어 정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임명장 및 품수증을 받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칭 지도자라 칭하는 일부 승려들이 더 이상 명칭 및 직책 사용을 할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국불교 380여 종단,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왕청 회원종단으로 가입 하십시오.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중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旨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불타봉사단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사무국 02-733-5665, 733-5670, 팩스 733-5615, H.P : 011-229-6061 /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03